

전남도 환경친화형축산 육성 2733억 투입

시설 현대화 382억·조사료 생산 확충 953억 등 44개 사업
지난해보다 476억 늘어...친환경축산 1번지 자리매김 기대

전남도가 2020년 도내 축산업 진흥을 위해 국비 446억원을 포함해 모두 44개 사업에 27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42개 사업 2257억원에 비해 476억원(21.1%)이 늘어난 금액이다. 전남도는 9일 "올해 도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물 품질 고급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등 4대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을 위

해 축사시설 현대화 382억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 200억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20억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40억원 등 5개 사업에 786억원을 지원한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 109억원,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60억원, 축산 농장악취 저감 시설 지원 15억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악취 측정장비 5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억원 등 6개 사업에 204억원이 배정됐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53억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17억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20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13억원, 한우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11억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 35억원, 한우 등록 8억원,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2억원 등 9개 사업에 10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축산 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는 끝벌산업 육성 22억원, 말산업 육성 37억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30억원, 곤충산업 육성 7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60억원, 낙농가 작업시설 개선 15억원, 학교유급식 62억원, 농가사료구매자금

400억원 등 24개 사업에 68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을 통해 전남이 친환경축산의 1번지로 자리매김토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물 품질고급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1578호로 전국 1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96%로 전국 1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88호로 전국 3위, 4만9000ha 규모로 전국 제1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광주시·자치구 상생회의에 참석해 광주시 5개 구청장들과 대시민 상생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이 시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시-5개 자치구, 상생협력 손잡다

경제1번지 도약 원년 만들기
20대 핵심시책 협력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광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자치구청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했다. 이날 행사는 '2020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주시와 자치구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올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어 광주를 대한민국 정치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 ▲노사상생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유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세계화 ▲광주 전남 상생협력 등 2020년 20대 핵심시책에 대해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5개 자치구청장은 올해 광주 시정 방향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또 이 시장 주재로 당면 현안과제 등을 협의했다. 먼저 광주시는 '정의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구는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세 전부개정 건의'와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거버넌스 구성 건의' 등 2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와 해당 자치구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자치구 상생회의'는 민선7기 들어 시와 자치구 간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엔 통합된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일로-몽탄-동강 간 국지도 개통식

무안 남악~나주 동강 지방도 개통식 무안 남악과 나주 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통식이 9일 오전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이민준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산 무안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개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무안 일로~몽탄~나주 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총연장 14.5km를 2개 공구(무안 일로~몽탄 8.5km, 몽탄~나주 동강 6.0km)다.

전남도 최대 규모 국제우호교류단 5월 중국 방문

김영록 지사 등 130여명
6일~10일 산시성 등 방중
'전남 주간행사' 개최 예정

전남도가 최대 규모의 국제우호교류단을 구성, 중국을 방문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 우호교류와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교역단인 오는 5월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산시성과 장시성을 잇따라 방문한다. 지난해 중국 산시·장시성의 전남도 방문에 따른 답방 형태로 김영록 전남지사

를 포함, 130여명의 방문단이 중국 현지에서 '전남도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 산시성에서는 160여명이, 장시성에서는 50여명이 전남도를 방문, 대대적인 교류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전남도 방문단은 전세기로 산시성 타이위안과 장시성 난창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 경제교류, 관광홍보, 무역상담 등의 행사를 펼친다. 또 국역단공연과 공예품 및 지역 특산물 전시와 함께, 축구·탁구 등 청소년 스포츠 교류도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 이외에도 동신대가 같은 시

기, 중국 장시성 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농업기술원과 광주전남연구원도 중국 기관과의 기술협력 및 연구교류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대규모 방문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 현지 전남도 주간행사를 위해 경제사절단 30여명, 관광홍보단 10여명, 무역상담기입 15곳 등을 꾸릴 예정"이라며 "차질없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세 1월까지 연납하면
광주시, 10% 공제해 드려요

앞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혁신도시 운행 택시요금 인상

17일부터 미터기 요금 30% 가산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전남 나주 공동혁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 편도요금을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혁신도시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 시내요금 수준이지만, 사업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기존 미터기 요금에 30% 가산금을 부여한 새로운 요금 조건표를 마련하고 오

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15km 정도 택시로 이동할 경우 미터기 요금으로 1만4600원이 부과됐지만, 17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조건표를 적용해 가산금이 부여된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는 요금 조정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운행거부와 요금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요금표를 택시 내에 비치하고 터미널,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